

무용마루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주)탄쯔

# 탄쯔무용마루 & 탄쯔무대 현장스케치



부산 동아자고등학교

2025.02 VOL.29

탄쯔마루 1:1상담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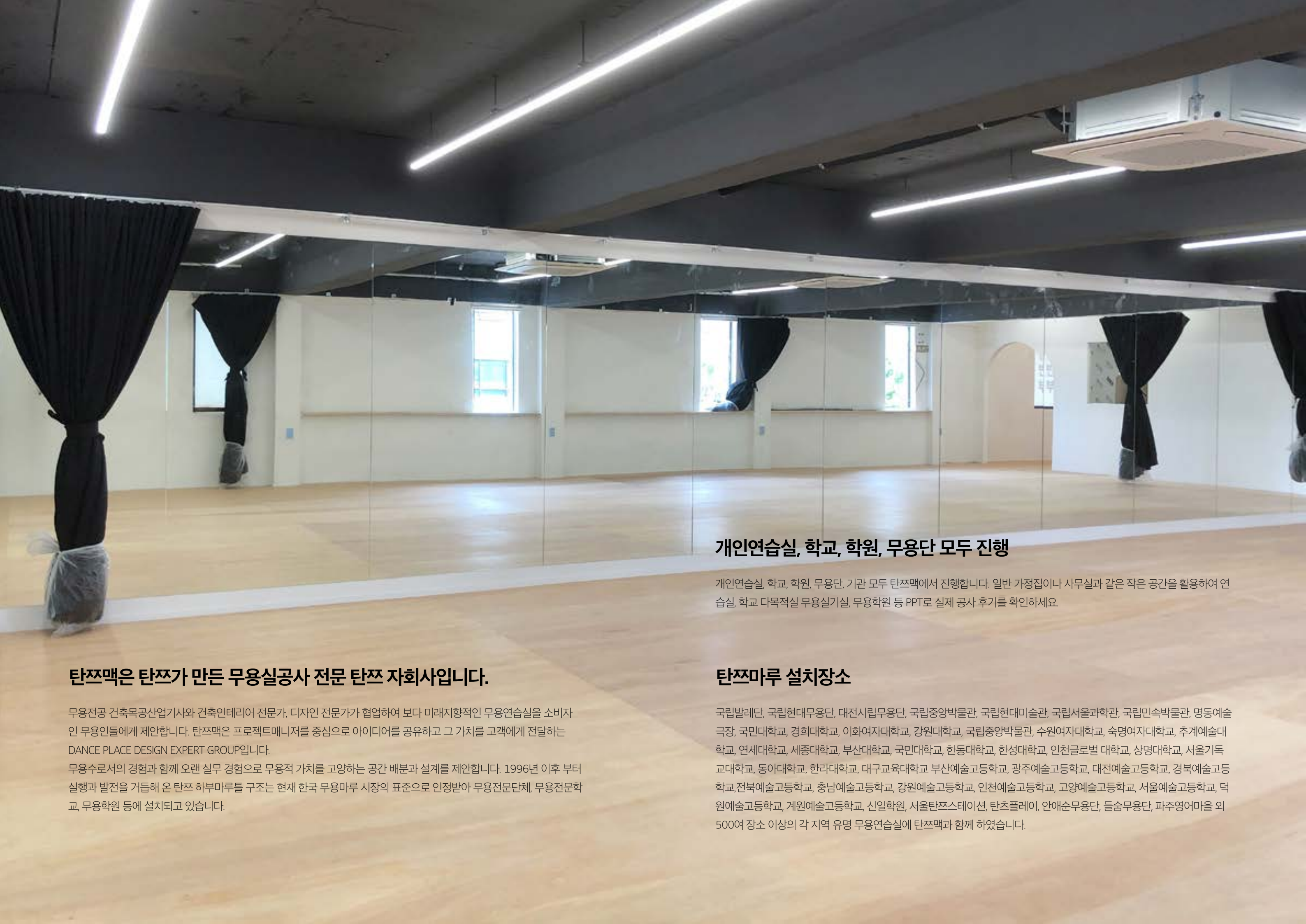
**1833-3401 ~ 2**

Tanz  Journey into the world of ballet [www.tanz.co.kr](http://www.tanz.co.kr)

Tanz  Mac Danced place design expert group [www.tanzmac.com](http://www.tanzmac.com)

TanzMac Magazine





## 탄뜨맥은 탄뜨가 만든 무용실공사 전문 탄뜨 자회사입니다.

무용전공 건축목공산업기사와 건축인테리어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가 협업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무용연습실을 소비자인 무용인들에게 제안합니다. 탄뜨맥은 프로젝트매니저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DANCE PLACE DESIGN EXPERT GROUP입니다.

무용수로서의 경험과 함께 오랜 실무 경험으로 무용적 가치를 고양하는 공간 배분과 설계를 제안합니다. 1996년 이후부터 실행과 발전을 거듭해 온 탄뜨 하부마루를 구조는 현재 한국 무용마루 시장의 표준으로 인정받아 무용전문단체, 무용전문학교, 무용학원 등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 개인연습실, 학교, 학원, 무용단 모두 진행

개인연습실, 학교, 학원, 무용단, 기관 모두 탄뜨맥에서 진행합니다. 일반 가정집이나 사무실과 같은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연습실, 학교 다목적실 무용실기실, 무용학원 등 PPT로 실제 공사 후기를 확인하세요.

## 탄뜨마루 설치장소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대전시립무용단,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서울과학관, 국립민속박물관, 명동예술극장, 국민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국립중앙박물관, 수원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연세대학교, 세종대학교, 부산대학교, 국민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성대학교, 인천글로벌 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동아대학교, 한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대전예술고등학교, 경북예술고등학교, 전북예술고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강원예술고등학교, 인천예술고등학교, 고양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계원예술고등학교, 신일학원, 서울탄뜨스테이션, 탄츠펠레이, 안애순무용단, 들숨무용단, 파주영어마을 외 500여 장소 이상의 각 지역 유명 무용연습실에 탄뜨맥과 함께 하였습니다.

# 믿을 수 있는 AS보장! 탄짚발레바 15%할인!

탄짚맥을 이용해주신 고객님께 AS보장, 시공 명판제작,  
탄짚발레바 최대 15%할인, 청소키트제공의 혜택을 드립니다.





**Before**



**After**



## 개요

부산 동여자고등학교에 무용연습실과 무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동안 무용연습실 작업은 했지만 무대를 함께 하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깊이 3미터에 너비 11.5미터 정도에 이르는 작은 무대를 어떻게 만들고 이 무대에 탄성이 있는 탄짚마루를 더해 연습실과 동일한 조건의 안전한 무대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목수들과 유튜브 자료를 토대로 사전 작업을 스케치업으로 작업해 보았습니다. 트랜스라고 하는 구조물을 짜고 그 위로 마루를 놓는 방식입니다. 다루끼와 니부 합판을 사용하기도 하고 투바이와 삼부합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랜스 간격은 대체로 600mm를 띠고 만들고 트랜스에 거는 구조는 400mm 간격을 유지하는 방식이 탄짚마루를 상부체 배치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탄짚마루 작업 진행**: 탄짚마루 개발 무용전공 건축목공산업기사, 미술전공 목공기능사, 매트전문기사





스케치업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후 자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자재 준비와 무대 작업에 대한 계획이 끝났으니 이제 자재를 발주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목공산업기사1인, 목공기능사1인, 매트전문가 1인, 도합 3인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동여자고등학교 무용실 현장으로 떠납니다.



# 첫째 날

수요일 새벽 세 시 출발해 여덟 시 십분 쯤, 부산 KBS방송국 뒷편에 있는 부산 동여자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이미 5톤 스카이 차량이 와 있었고 자재를 실은 트럭과 지게차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층 무용실에서 물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자재를 무용실 현장에 다 내려 놓았습니다. 자재를 모두 나르는데에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공구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려놓았습니다.

탄짚마루공사를 시작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자재입고와 공구입고 및 배치입니다. 작업 현장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자재와 공구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현장은 칠십여평에 이르는 연습실 크기인 만큼 작업을 시작하려는 위치에 조금 떨어진 곳에 공구와 자재를 배치하였습니다.



첫 날 작업 일정, 자재와 공구를 현장에 배치하고 무대와 연습실을 구분하는 먹줄을 놓은 후 연습실과 무대에 필요한 자재를 각각 구분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부산과 같은 지방 현장에서 일할 때 중요한 것은 식사와 숙소입니다. 숙소는 동여자고등학교 가까이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로 정하였습니다. 점심식사는 동여자고등학교 시공팀에게 제공하는 점심 도시락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무대 작업은 우선 뒤로하고 연습실 마루 작업을 무대와 연이어 있는 곳을 기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기사(목공기능사)가 마루 하부틀 재료를 조립하여 만들어 제공하면 김반장과 이반장이 탄짚마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작업의 시작점은 거울과 무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탄짚마루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시작점을 어디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업의 효율을 좌우하기 때문에 작업 시작점은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직영 공사팀을 가진 회사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작업은 연습실에 하부마루틀 1레이어를 70% 정도 진행한 채로 일을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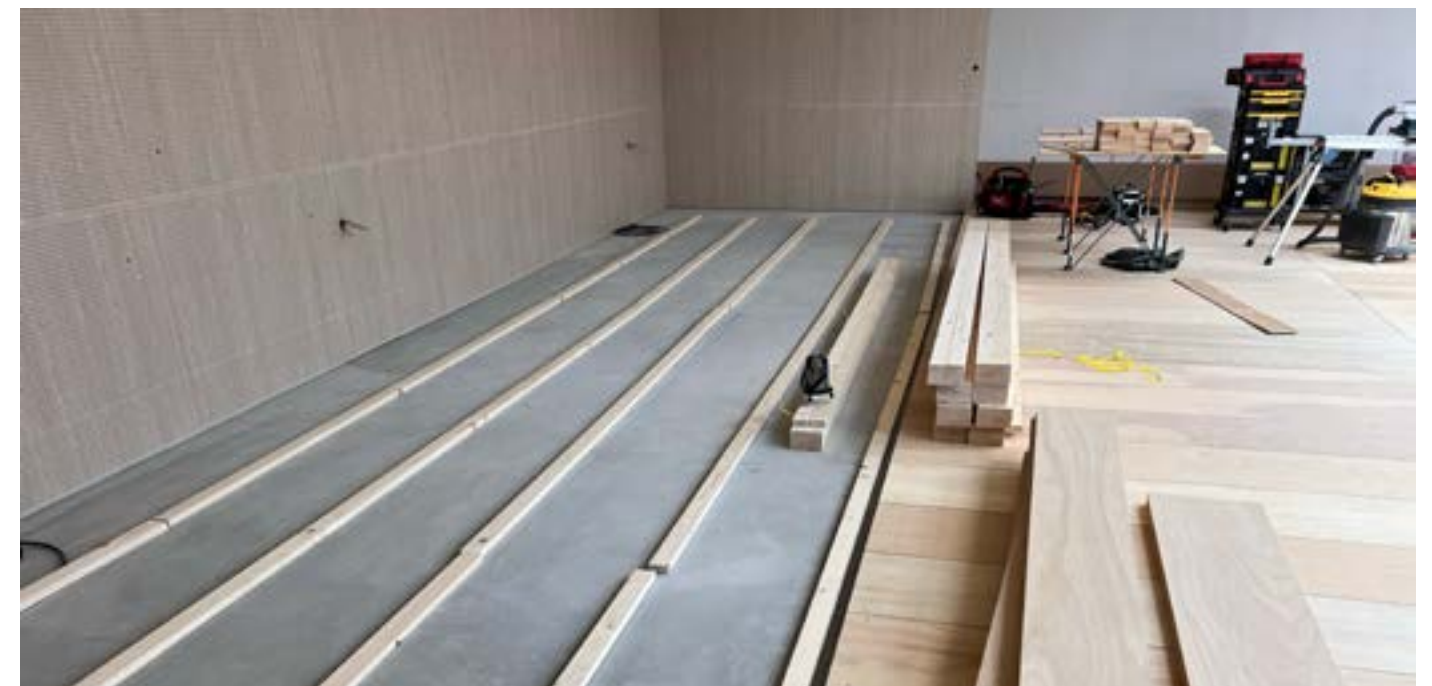
숙소는 작업현장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숙소를 확인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 3인 작업자 모두 깊은 잠에 빠지면서 첫 날이 지났습니다.



## 둘째 날

오전 7시 반경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1층 레이어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무대 작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대 작업은 단을 30센티 높이는 트랜스 작업이 우선 시작입니다. 트랜스의 위치를 정확하게 배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은 이미 사무실에서 준비한 스케치업 도면을 토대로 바닥에 먹선을 놓고 그 위로 각재 투바이를 배열하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무용연습실 1층 레이어 작업은 출입문 신발 벗는 곳 까지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출입문 쪽은 아직 문틀을 설치하지 않아 신발을 벗는 공간이 다소 유동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마감을 완료하지 않고,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대 트랜스의 틀 작업을 김반장과 이반장이 진행하였습니다.

이 트랜스는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보조목을 600밀리 간격으로 9밀리 합판 절목을 높이 30센티미터로 잘라 붙이고 앞 쪽에 레이저를 이용해 수평 270밀리 위치를 연필로 표시하였습니다. 앞에서 부터 한 줄 씩 각재 투바이를 붙이고 - 이 때 F-30, 목공본드, 실리콘, 나사 등을 사용해 각 부재를 연결하여 조립강도를 높이며 작업하였습니다.





무대 트랜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사이 연습실은 2층 레이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공구와 자재가 바닥에 놓여 있어 이들을 치워 가며 이기사가 작업을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김반장과 이반장은 무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무대 트랜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가로로 선 다섯 개의 트랜스 위로 400밀리 간격의 각재를 놓는 작업을 드디어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까지 올리면 높이가 30센티미터가 되고 이 위로 탄짚마루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탄성이 있는 무대 작업이 드디어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어느새 오후 네시를 넘었습니다.

# 셋째 날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이어, 이제는 안정감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 속도를 조절해 나갑니다.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으며 무대와 연습실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대 작업도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는 사이 연습실 2층 레이어 작업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이기사가 팔목에 조금 무리가 간 듯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묵묵히 모든 일을 해왔는데, 혼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파스를 붙이고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며 컨디션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셋째 날이 지나고, 내일은 무대와 무용실 마루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작업이든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최종 마무리는 매트 작업이므로, 내일은 목작업을 마무리하고 매트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넷째 날

드디어 무대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끝부분에서 삐걱이는 소리가 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기사가 플런지 소를 들었습니다. 플런지 소는 정밀한 목재 재단이 가능한 고급 원형톱으로, 소리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연습실 2층 레이어 작업도 거의 마무리 작업입니다.



신발 벗는 위치를 정하였고 그에 맞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마지막, 다섯째 날

웰딩 작업은 오전, 마지막 날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웰딩 작업만 마치면 전체 작업이 완료됩니다. 무엇보다 마무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철 매트 작업은 딱딱한 매트를 정밀하게 절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매트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용 슬리퍼를 착용하여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진행했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며 정성을 다한 만큼 작업자들도 상당한 체력을 소모했지만, 최상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었고, 드디어 전체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현장 소장의 검수를 받았습니다. 한쪽 면에서 기포가 발생한 부분이 발견되어 한 줄을 칼로 정밀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웰딩이 잘 마무리되었고, 절단 작업도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현장 소장을 비롯한 작업자들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여자고등학교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의미는, 규모는 작지만 무용실 내 작은 무대를 탄쁘공법으로 완성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오전 11시경, 모든 작업을 마쳤고 이제 부천 본사로 돌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어느덧 회사에 도착했네요.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Journey into the world of ballet



[www.tanz.co.kr](http://www.tanz.co.kr)

*tel. 1833-3401*

Danced Place Design Expert Group



[www.tanzmac.com](http://www.tanzmac.com)

*tel. 1833-3402*

본 컨텐츠는 주식회사 탄쯔의 소유입니다.  
당사의 승인 없이 컨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 복사/복제하여 무단 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ade by TANZ

# 무용마루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주)탄쯔



18, Buheung-ro 272beon-gil, Bucheon-si, Kyunggi-Do, South Korea Tel. 1833.3401 Fax. 032.651.3473  
cs@tanz.co.kr www.tanz.co.kr